

요한의 이백 쉰째 번째 편지

2017년 6월 30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지 난달에는 이곳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평안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는 특별한 변화 없이 아버지의 은혜 가
운데 있습니다. 작은 별관 이층을 공사와 동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년동안 에르지에
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국
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유월 중순까지도 아침저녁에는 추울 정도였
는데 한주 전부터 삼십도를 넘는 더위가 시작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손
을 모아 주세요. 알리나 무라트가 직장으로 인
해 모임에 참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유한나
는 일주일간 여름 어린이 수련회에 다녀왔습니
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배운 내용들이
삶에 잘 적용이 되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고 있
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년 주일학교는 금년에 성경을 전체
를 합니다. 상반기 유월까지는 구약을 했는데
하반기는 신약을 시작 합니다. 신약을 통하여도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이들과 한나를 위
하여 손을 모아 주세요.

별관 공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층을 위
해 건축업자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한 주간이
면 된다고 했는데 세 주간이 지났는데 주어진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아직 열흘은 더 걸린다
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일단

주어진 일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
굴 깎는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명이 와
서 일하고 있는데 마무리 될 때 까지 일을 잘
하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한사협 모임을 앙카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는 수련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요
한이 책임을 맡으면 이년간 못한 수련회를 하
려 하는데 이를 위하여 손을 모아 주세요.

카이세리에 에르지예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년간 한국어를 가르쳤던 김기창 교
수님 부부가 칠월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
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
습니다. 장로님이어서 저희가 많이 힘이 되었는
데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 서운함이 있
습니다. 금년 봄에 다른 동료가 떠나게 되었는
데 저희만 남겨 놓아서 ...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늘 저희를 도우시
고 함께 하기를 손을 모아주세요.

저 희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함으로
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인데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지난달에 말씀 드린 대로 특별히
감사한 것은 토마스와 에스더가 그동안의 사역
훈련을 마치고 유월 이십육일에 파송예배를 드
렸습니다. 칠월에 터키로 들어와 삼 개월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들은 진행이 되도
록,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들의 결정이 아버지의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
니다. 저들의 사역에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달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시편 육십오 편 오 절부터 칠십오 편 십 절까지, 느헤미야 십이 장부터 시편 백십구 편까지 주셨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암송하며 감사하며 나가 갔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암송하고 묵상이 어렵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늘 손을 모아 주세요.

이달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과 모임에서는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요 공부 시간에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인격이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식으로 알려 했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금 모든 것의 원천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달에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식사 후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저 자신에 대한 자세한 고백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철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곁을 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를 변화 시키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이웃에게 동료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변화를 받아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일을 맡기시며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손을 모아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사역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손을 모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갑바도기아에서 아버지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요한, 한나, 다윗, 토마스, 에스더 드림

6월 공동체의 활동

- .카파도키아 주일, 화요일 모임에 감사
- .제이다 집에서 여성모임 참석 한나(06.10)
- .어린이 공과 교재 구입(06.11)
- .매일성경 구입(06.23)
- .유한나 어린이 수련회(06.15-22)
- .알리 심방(06.29)

6월의 감사한 일

- .카파도키아의 안전
- .별관 2층 공사 계약(06.05)
- .대사와 교민(11명)의 시간(06.08)
- .작은 동굴 공사 다시 시작(06.21)
- .한사협모임(06.12)
- .김기창교수 부부 한국으로 복귀를 위해 내방(06.24)
- .토마스, 에스더 중선 파송(06.26)
- .이형곤 부부 내방(06.29)

7월의 간구

- .카파도키아의 안전과 평안함
- .계속적인 주일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 건강을 위하여
- .후베르트, 훌리아, 알리, 투란, 무라트, 제이다 위해
- .토마스, 에스더 터키 방문 사역(07.13)

현지 휴대폰 +90 536 588 0182, 집 +90 384 214 2852
카톡 ID leeland365(+82 10 5123 9082)
leeland366(+90 536 588 0182)

후원구좌

하나은행 585-810010-03305(이승열)
우 체 국 013805-02-013924(이승열)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65길 43-1 성경매일쓰기 우07023
☎ 070 8627 9082, 031-743-5067